

프랑스 고전·한국 전통美의 만남

‘귀족놀이’ 11~24일 국립극장... 새달엔 佛나들이

‘프랑스 고전 명작과 한국 전통 미학의 만남’

프랑스 연출가 에릭 비니에가 국립극단 배우들과 함께 하는 연극 ‘귀족놀이’ (11~24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가 독특한 시도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국립극단 기획공연 시리즈 ‘세계명작무대’의 하나인 ‘귀족놀이’는 우리에게 ‘귀족수업’이란 제목으로 더 잘 알려진 프랑스 풍자 희곡의 대가 몰리에르의 작품. 기존 작품들이 돈 많은 평민 ‘주르맹’이 귀족계급에 끼어들려고 벌이는 소동을 단순한 풍자극으로 그려다면 이번 무대는 주르맹이 후작부인을 만나 문화와 예술에 눈뜨는 과정을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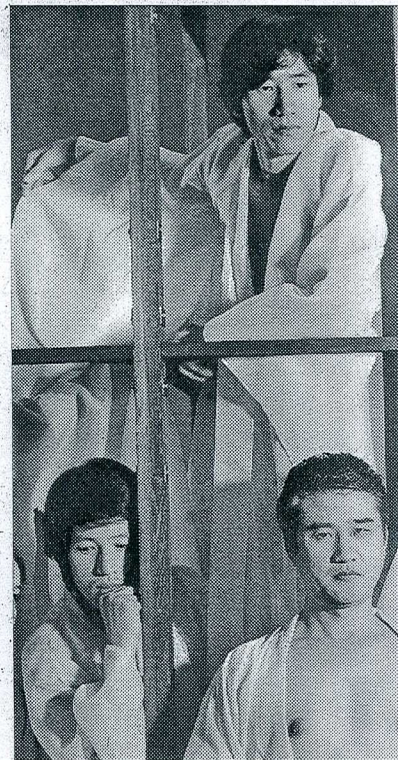
남자의 꿈과 환상이란 측면에서 바라본다. 작품 해석의 새로움 뿐만 아니라 무대의 음악, 춤, 의상 등에 한국적인 색채를 최대한 살린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조형미술을 공부한 에릭 비니에가 직접 디자인한 무대는 한국 디자이너의 손길을 거쳐 한국적인 정서로 재탄생했고, 17세기 바로크 음악은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국악기 연주로 편곡된다. 안무는 국립무용단 6명의 춤사위로 펼쳐지며, 의상 또한 한국 천의 선과 질감을 그대로 살렸다.

‘귀족놀이’는 한국공연이 끝난 뒤 오는 10월11~16일 프랑스 브르타뉴의 ‘로리앙(Lorient)극장’에서 가을 시즌

공식 레퍼토리로 프랑스 관객들을 만날 예정. ‘피고지고 피고지고’ ‘맹진사댁경사’ ‘무의도 기행’ 등 몇몇 작품이 해외에서 공연된 적은 있지만 모두 행사 위주의 단발성 초청공연이었던 반면, 이번 ‘귀족놀이’는 출연료를 받고 정식으로 공연되는 국립극단의 첫번째 해외 진출작이다.

연출가 에릭 비니에는 현재 브르타뉴 국립연극센터 소장 겸 로리앙 극장 예술감독. 최연소(35세)로 프랑스의 국립연극센터 소장에 임명될 만큼 실험성과 연극성을 고루 갖춘 연출가로 평가받고 있다. 주인공 주르맹역에는 국립극단 간판 배우 이상직이 출연한다. 1만 5000~3만원 (02) 2280-4115. **11월 26일 9/11**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귀족놀이’의 한장면.